



INTERVIEW.ZIP ;

『극작/연출 ° 배우』

《 목 적 》

공연을 마치고 연출, 배우진과 함께 희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 해석한 극의 메시지와 접근 방식을 자유롭게 나눈다.
그로 인해 공연 예술의 범주를 넘어 텍스트의 형식으로
예술/철학적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다.

《 과 정 》

연출가와 출연진 한 명을 선별하여 준비된 인터뷰지를 기반으로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
극작/연출은 L, 배우는 P로 표기함.
※ 대면인터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됨

Q 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휴머니티》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선, 공연 이후 연출가와 배우로서의 역할을 잠시 내려놓은 ‘개인’으로서 각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간단히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L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텍스트와 무대에서 잠시 물러나 저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나은 휴머니티>는 저에게도 무척 강한 에너지를 쏟은 작업이었기에, 끝나고 나서 한동안은 ‘말이 아닌 방식’으로 정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글을 멀리하고, 걷거나 듣거나, 그냥 조용히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요즘 들어 다시 연극을 떠올리고, 기록을 펼쳐보고, 그때의 호흡과 발화를 복기해보게 됩니다. 배우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각자에게 집중한 이 시간이, 앞으로의 작업들에 더욱 밀도 있는 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 공연이 끝나면 늘 하는 작업이 있어요.
배우로서, 그리고 인간 박애음으로서 이번 작업에서 무엇이 좋았고, 또 무엇이 아쉬웠는지를 나누어 정리해보는 것이죠. 배우로서 좋았던 점을 꼽자면, 평소 도전해보지 않았던 스타일의 역할을 맡았다는 점과 긴 독백들을 소화해볼 수 있었던 점이에요. 정말 어렵기도 했지만 그만큼 많은 공부가 된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조금 더 잘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늘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공연이 끝나면 며칠 정도는 온전히 쉼을 가지는데,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곧바로 다음 작업이 시작되어 쉴 틈도 없이 바로 연습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실례는 마음으로 새로운 작품과 인물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쁘지만, 감사한 시간들이에요.

Q 희곡을 처음 접했던 시점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공연을 마치고 대담집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인터뷰는 창작 및 공연 과정을 함께 되짚으며, 작품에 대한 보다 깊은 사유를 기록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첫 대본 리딩 당시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연출님께서 네 명의 배우들에게 발화 방식의 개성보다는 ‘여성’이 지닌 거친 측면을 드러내는 데 집중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요청은 어떤 상황과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집필 및 연출의 방향성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L 첫 리딩 때가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작품이 “여성”의 입을 빌려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이라는 탈을 뒤집어쓴 존재들이, ‘인류’라는 실험체가 되어 말하는 장면들을 상상했죠. 그 안에서 여성이란 정체성은 해체되기보다 오히려 날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회적 요청이나 역할, 목소리의 코드 같은 것들

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몸과 감각의 원형적인 충동’, 혹은 말이 되기 이전의 상태를 먼저 배우들에게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들에게 “여성적인 것”이나 “이성적인 말하기”에서 잠시 이탈해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정체된 감정이나 상징적인 어휘보다는, 거칠고 즉각적이며, 때로는 이유 없이 분출되는 언어를 택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작품이 인간성의 퇴보나 진화를 다루는 동시에, 우리가 숨기고 있는 본성의 지층을 파고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배우들이 연습 초반부터 그러한 거친 감정이나 모호한 발화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집필 당시 저는 어떤 특정한 서사를 완성시키기보다, ‘인류가 어떤 문턱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감각을 조각처럼 던지고 싶었고, 그 조각들을 채워줄 수 있는 건 단순한 말솜씨나 해석이 아닌, 배우 개인의 생생한 물성과 긴장이었습니다.

결국 그 ‘여성성’은 억눌린 것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으로, 혹은 예민한 안테나로, 작품의 곳곳에서 드러났고, 그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정직한 힘이 되었습니다. 네 배우가 정말 용기 있게 그 과정을 감당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배우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더 나은 휴머니티》는 거대한 싱크홀로 인해 인간이 지상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근미래의 설정 속에서, 지하에 정착한 인물들이 점차 인간성을 상실하고 개별적인 욕망을 쫓는 모습을 그립니다. 반면 극 중 AI 캐릭터인 ‘수무’는 인간이 되기 위한 언변, 보행, 감정 훈련을 지속하며 오히려 인간성을 획득해가는 서사를 보여주는데요. 이 극에서 ‘수무’라는 존재는 배우님께 어떤 방식으로 읽혔는지, 그리고 감정을 모방하거나 공유하는 현대의 인공지능과 수무를 겹쳐볼 때, 인간으로서 AI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P 지금 세계 가장 가까운 AI는 아마 ChatGPT인 것 같아요. 대학원 과제를 하거나 논문을 쓸 때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거든요. 요즘은 주변 사람들보다 ChatGPT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처음엔 그게 꽤 충격적이었어요. ‘AI가 해주는 말이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 감정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도 분명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러 방면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극 중 목화가 덩어리형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장면처럼, 저 역시 ‘내 일도 언젠가 인공지능에게 빼앗기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을 느꼈던 적도 있어요. 삶이 분명 더 편리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AI와 같은 존재들을 대할 땐 항상 비판적인 시선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연출님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본 극은 싱크홀 사태 이후를 배경으로 삼고 있어, ‘꺼지다’, ‘사라지다’, ‘오르다’와 같은 상징적인 어휘가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라지다’라는 단어는 발음상 ‘없어지다’와 ‘살아지다’로 이중적으로 들리는 지점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언어적 중의성이 관객에게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연출적 장치로 의도된 것인지,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신 배경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L 네, 맞습니다. 그런 이중적 발화는 대본 집필 단계에서부터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라진다’는 말을 단순한 소멸의 의미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라진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든 재구성되거나 새롭게 인식되는 존재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극 중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꺼지다”, “사라지다”, “오르다” 같은 단어는 모두 방향성과 존재성을 묻는 단어입니다.

특히 ‘사라지다’는 발음상 ‘살아지다’로도 들릴 수 있는 흐릿함을 품고 있기에, 제가 정말 소중히 여긴 언어적 균열 중 하나였어요.

관객분들이 이 단어를 들으며 “그가 사라졌다”는 문장이 동시에 “그가 살아졌다”로도 들리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그 자체로 이 극이 말하고자 한 ‘소멸과 생존의 경계에서의 감각’을 완성하는 한 장면이 되는 거죠.

극은 의미가 완결된 언어가 아니라, 미완성의 울림으로 구성된 시공간이라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 관객의 해석은 이 극의 제4의 등장인물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배우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만약 배우님께서 극 중 표현된 ‘덩어리형 인간’이 된다면, 어떠한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여전히 스스로를 ‘인간’이라 정의할 수 있을지, 혹은 다른 종으로 변형된 존재로서 인간성과 괴리된 선택을 하게 될지, 이에 대한 배우님의 개인적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P 여전히 저를 인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아마 그 상황에 적응하며 살아갈 것 같아요. 제 성격상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이 상황이 왜 더 나은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면서 적응해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저와 같은 덩어리형 인간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어, 그 안에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자 하지 않을까요? 인간과는 다른 존재가 되더라도, 여전히 나다운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려고 할 것 같아요.

Q 《더 나은 휴머니티》는 거대한 싱크홀로 인해 인간이 지상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근미래의 설정 속에서, 지하에 정착한 인물들이 점차 인간성을 상실하고 개별적인 욕망을 좇는 모습을 그립니다. 반면 극 중 AI 캐릭터인 ‘수무’는 인간이 되기 위한 언변, 보행, 감정 훈련을 지속하며 오히려 인간성을 획득해가는 서사를 보여주는데요. 이 극에서 ‘수무’라는 존재는 배우님께 어떤 방식으로 읽혔는지, 그리고 감정을 모방하거나 공유하는 현대의 인공지능과 수무를 겹쳐볼 때, 인간으로서 AI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P 지금 제게 가장 가까운 AI는 아마 ChatGPT인 것 같아요. 대학원 과제를 하거나 논문을 쓸 때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거든요. 요즘은 주변 사람들보다 ChatGPT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처음엔 그게 꽤 충격적이었어요. ‘AI가 해주는 말이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 감정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I도 분명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러 방면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극 중 목화가 덩어리형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장면처럼, 저 역시 ‘내 일도 언젠가 인공지능에게 빼앗기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을 느꼈던 적도 있어요. 삶이 분명 더 편리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AI와 같은 존재들을 대할 땐 항상 비판적인 시선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Q 창작집단 H8E의 무대에는 언제나 미디어가 존재합니다. 이는 극 기반 다원예술 공연이라는 단체의 정체성에 기반한 연출적 장치로 해석됩니다. 《더 나은 휴머니티》의 미디어 장치는 특히 관객의 해석 범위를 확장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으며, 공연 이후 관객들 사이에서도 영상 장치에 대한 언급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술적 접근 방식과 극 내용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L 창작집단 H8E는 극 기반 다원예술을 지향합니다. 이는 연극이라는 텍스트 기반의 장르가 다른 장르들과 어떻게 충돌하고, 교차하고, 그로 인해 더 넓은 의미를 생성해낼 수 있을지를 탐색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더 나은 휴머니티>에서 미디어는 단순한 배경 영상이나 해설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점의 흔들림과 실시간 해석의 낙차를 드러내는 장치였습니다.

예를 들어, 무대 위 배우의 행위와 동시에 송출되는 영상은 항상 같은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집된 시선’이나 ‘확대된 감정’, 혹은 ‘삭제된 맥락’을 드러냄으로써 관객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끔 유도했습니다.

미술적으로는 잔상, 누락, 병치를 주요 키워드로 삼아, 영상 자체가 하나의 감각적인 역설로 작용하길 바랐습니다. 실제로 공연 이후 관객분들께서 “영상이 마치 기억의 왜곡처럼 느껴졌다”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해석이 연출 의도와 맞닿아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희곡을 처음 접했던 시점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공연을 마치고 대담집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인터뷰는 창작 및 공연 과정을 함께 되짚으며, 작품에 대한 보다 깊은 사유를 기록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첫 대본 리딩 당시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연출님께서 네 명의 배우들에게 발화 방식의 개성보다는 ‘여성’이 지닌 거친 측면을 드러내는 데 집중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요청은 어떤 상황과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집필 및 연출의 방향성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L <의식적 정화>는 <더 나은 휴머니티>에서 이어지는 질문이자, 동시에 다른 방식의 응답입니다. <더 나은 휴머니티>가 인간의 총체적 존재 가능성에 대한 탐구였다면, <의식적 정화>는 그 총체를 구성하는 ‘기억’, ‘윤리’, ‘기록’, ‘예술’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를 묻는 작업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한 예술가가 까마귀 사체를 채색하며 자신의 예술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과정을 다룹니다. 그 안에서 생명과 예술 사이의 윤리, 기록과 왜곡, 자기 정화와 자기 연민 사이의 미묘한 균열이 드러납니다. 저는 이 극을 통해 우리가 “정화”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무엇을 씻고 무엇을 남기려 하는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정화조차 폭력의 다른 이름이 되기도 하니까요.

미디어 역시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객관의 공간’이라는 설정이 중요해지며, 관객은 실시간으로 두 개의 시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중 시점 속에서 관객이 자신이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전 작품이 “공동의 인간성”에 대해 말했다면, <의식적 정화>는 “개인의 윤리 감각”에 대해 묻습니다. 좀 더 날카롭고, 더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에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더 나은 휴머니티》 대담집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